

동원산업-한양대, 한양AI솔루션센터 설립 AI 기술, 산업체 확산에 물꼬

중소·중견기업에 AI기술 공유
산업체에 도움 되는 실용 연구

최근 글로벌 산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산업체 현장에 실제로 적용,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한양AI솔루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양AI솔루션센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게 AI기술을 공유하고 이들의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AI솔루션센터다.

동원산업은 한양대학교와 10일 한양AI솔루션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원산업이 30억원을 기부하고, 개교 80주년을 맞은 실용학풍의 대명사 한양대가 손을 맞잡아 탄생한 것이다.

한양대 한양종합기술원(HIT)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이명우 동원산업 사장,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초대 센터장은 삼성전자에서 AI개발 그룹장을 역임했던 강상기 박사가 맡는다. 기업체 출신의 센터장을 배치함으로써 한양AI솔루션센터를 연구개발(R&D)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하는



10일 진행된 개소식에서 손욱 전 삼성종합기술원장(왼쪽부터),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이명우 동원산업 사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최덕근 한양대 교학부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원산업

벤처회사처럼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강 센터장은 “한양AI솔루션센터는 제조공정 분야 위주로 실용적 AI기술을 이용한 핵심솔루션을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핵심적이고도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가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동력(動力)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양AI솔루션센터는 산업체 현장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많은 한양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AI 기술의 국내 산업체 확산에 본격적인 물꼬를 트겠다는 목표를 갖

고 있다.

앞으로 한양AI솔루션센터는 제조공정·스마트IT·머신러닝·AI플랫폼분야 등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용연구로 기업 대상 기술자문, 솔루션 개발, 임직원 대상 AI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양대는 AIS피커를 국내대학 최초로 상용화한 장준혁 교수를 부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연구력이 뛰어난 20여명의 교수를 센터에 참여시켜 솔루션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학 최초로 다양한 AI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AI 기부 강좌’ 개설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인웅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대학별 전략 세워 수능 대비”

남은 30여일, 선택과 집중 필요
수능 일정 따른 컨디션 조절 중요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짧은 기간 급격한 성적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목표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과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그동안 풀었던 수능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게 좋다.

국어와 영어의 경우 정답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해설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해보자. 수학은 풀이과정이 논리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은 제한된 시간이 있으므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이할 때는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문제 풀이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새로운 문제를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로 풀이해 보는 것이 좋다. 이 때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오답 정리를 꼼꼼히 하고 이를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해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목표로 정한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도 대

학별 실질 반영률 차이가 크므로 영어 성적의 상대적인 위치를 감안해 지원 대학을 정하는데 참고해야 한다.

예컨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경우 인문계 탐구영역 반영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양대는 30%로 높은 편이지만, 서강대는 18.7%, 성균관대는 20%로 상대적으로 반영비율이 낮다. 반대로 인문계 수학의 경우는 서강대가 46.9%로 높지만, 성균관대는 40%, 한양대는 30%이다.

따라서 이들 대학 중 서강대를 지원하려면 탐구 영역보다는 수학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게 효율적이고, 한양대를 지원한다면 수학만큼 탐구영역에도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이 세워야 한다.

영어의 경우는 한양대 자연계열은 반영비율이 35%, 이화여대와 서울시립대 인문 I은 25%의 비율로 반영하지만, 서강대와 성균관대, 중앙대는 가점을, 서울대, 고려대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대학별 실질 반영비율이 다르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능 당일 일정에 따른 컨디션 조절도 중요한 시기다. 수능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오랜 시간 집중해 치러지므로, 이 시간대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용수 기자 hys@

대학가 소식

방송통신대 입학생 16.2% 학업 중도 포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는 지난 10년간(2010~2019) 총 56만 9183명이 입학했으나, 이 중 입학취소(포기), 자퇴자 등 등록금을 반환받은 학업 중도 포기자는 9만2351명으로 전체의 약 1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방송대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대학등록금 반환 현황’에 따르면 방송대 자퇴자는 7만9752명이 약 202억원, 입학취소(포기)자는 1만2599명이 약 44억5천만원의 등록금을 반환받았다.

이 밖에 과오납 1741명 약 4억6000만원을 포함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된 등록금이 총 2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대 입학생은 지난 2010년 7만 2183명에서 2019년에는 4만3291명으로 약 40%의 입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입학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만여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10년간 총 24만62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대는 모든 국민들에게 원격 교육방법에 의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어 평생 교육 체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방송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인재로 착실하게 성장하도록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단국대 죽전캠퍼스 상징탑 /단국대학교

단국대 경기 남동 기업에 무료교육

단국대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추진 본부가 경기 남동부(광주, 성남, 용인) 소재 기업의 마케팅과 투자유치, 재무교육 등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돕기 위해 무료 특화교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단국대 죽전캠퍼스 글로벌산학협력관 1층 SW디자인융합센터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디지털 마케팅 ▲투자유치 및 R&D 기획 ▲특허 ▲세무/회계/재무관리 등 4회에 걸쳐 구성. 강의별 선착순 30기업을 모집하며 단국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46년 한글연구’ 독학자 특강

한성대학교는 14일 오후 4시 교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알브레히트 후베 독일 본대학교 명예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후베 교수는 46년간 한글을 연구해 온 한글 전문가로,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쳤고, 서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등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한용수 기자

블라인드 채용한다지만... “면접자 외모, 구직에 영향”

사람인, 기업 926개사 설문조사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력서에서 사진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 시 구직자의 외모를 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채용 평가에서 외모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사람이인 기업 926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평가 시 외모의 영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8.4%가 지원자의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외식’(79.2%), ‘금융/보험’(76.2%), ‘유통/무역’(70.6%), ‘서비스’(68.4%)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할 일이 많은 업종에서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주는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도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유리할 것 같아서’(36.2%)라는 응답이 1위였다. 근소한 차이로 ‘꼼꼼하고 자기관리를 잘 할 것 같아서’(34.8%)가 뒤를 이었으며, ‘외모도 경쟁력이라서’(24.2%)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

아서’(23.5%), ‘업/직종 특성 상 외모가 중요해서’(19.6%) 등의 순이었다.

외모 중 채용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부분(복수응답)은 ‘인상, 표정 등 분위기’가 8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청결함’(40.5%), ‘옷차림’(32.3%), ‘체형’(18.9%), ‘이목구비’(11.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외모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33.9%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30%’(28.5%), ‘20%’(21.8%), ‘50%’(18.1%), ‘10% 미만’(13.9%)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기업 인사팀 10명 중 6명, 경력직 평판조회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은 경력직 채용시 평판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298명을 대상으로 ‘평판조회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60.1%는 ‘앞으로 경력직 평판조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33.2%,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6.7%였다.

평판조회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수집 차원에서 참고만 한다’(62.8%)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최종 선택에만 영향을 미친다’(21.5%),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14.4%), ‘평가

점수에 반영된다’(1.3%) 순이었다.

평판조회 시 가장 힘든 점으로는 ‘평판조회로 얻은 정보를 어느 선까지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56.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평판조회 의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28.9%), ‘많은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7.4%), ‘평판을 통해 얻은 정보를 보안유지하는 것’(4.4%), ‘평판조회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3%) 등이었다.

평판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72.5%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27.5%)보다 많았다. 평판조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생각하는 근거(복수응답)로는 ‘서류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에서 열린 연구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시스

나 면접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40.5%)가 가장 많이 꼽혔고, 평판조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평판조회를 통해 얻은 정보가 상세하지 못해서(수박겉핥기식이라서)’(58.5%)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용수 기자